



시간을 거슬러 사랑 꽃 피우다

SBS 새 월화극 '달의 연인 - 보보경심 려' 이준기·아이유 주연 ... 29일 1·2편 연속방영

“어머, 애 탕글탱글한 것 좀 봐. 풀때기만 먹는 고려에서 (피부)관리 잘했다. 다시 사니 좋은 것도 있네”

21세기 서울에서 화장품 회사에 다니던 고하진이 우연한 사건으로 천 년을 거슬러 고려 건국 초기인 10세기 송악(개성)에 떨어진다. 태조 왕건의 여러 아들 중 한 명인 8황자 왕욱의 아내 해씨의 육촌동생 해수가 된 것. 죽었다 살아났다고 생각한 고하진은 철없는 고려 소녀 해수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SBS 새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는 시간여행(타임슬립)을 하게 된 현대 여성이 10여년간 과거에 머물며 황자들과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의 판타지 사극이다.

'달의 연인'은 로맨틱 코미디만큼 경쾌하고 애뜻한 로맨스와 함께 권좌를 위한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암투를 다룬다.

주인공 고하진이자 해수는 아이유가 연기하고, 해수와 왕욱의 로맨스를 펼치는 상대역은 배우 이준기와 강하늘이 맡았다.

메가폰은 '그들이 사는 세상', '아이리스', '괜찮아, 사랑이야' 등에서 개성 있고 감성적인 연출력을 선보인 김규태 PD가 집었다.

김규태 PD는 24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달의 연인' 제작발표회에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무거운 전통 사극적 요소들을 살리면서도 상상력을 곁들여 고려 황실을 새로운 비주얼로 재구성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해수라는 현대적인 캐릭터를 통해 현대적 감성을 많이 가미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어 "독특하고 재밌고 감동적인, 기존 사극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묘한 중독성 지닌 작품이 나온 것 같다"며 자신감을 표실했다.

달의 연인은 기존의 퓨전 사극보다 더욱 현대적인 스타일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주인공 이준기, 아이유(이지은), 강하늘 외에 홍중현, 남주혁, 백현, 지수, 윤선우, 강하나, 진기주, 서현, 지혜라 등 많은 꽃미남 꽃미녀 배우들이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성균, 성동일, 조민기 등 명품 조연들의 감칠맛 나는 연기가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기는 "외롭고 인간의 정에 대한 결핍을 안고 살아가던 왕수가 현대에서 고려로 온 해수를 만나 마음을 풀고 성장해가는 모습이 상당히 공감이 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얼굴에 난 흉한 상처 때문에 얼굴의 반을 가면으로 가린 왕수는 '개늑대'로 불리며 맨손으로 짐승들을 도륙하는 야수성을 드러내지만, 어머니의 냉대로 빈민하는 모습은 상처 입은 야수처럼 연민을 자아낸다.

그는 "젊고 아름다운 황자들 사이에 이미 낄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운 좋게 마지막선에 덕걸이를 해 고군분투했다"며 "신구의 조화와 화합을 목표로 삼고 젊은 배우들과 선배 배우들이 결합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고하진·해수 1인2역에 도전하는 아이유는 "현대에서 과거로 넘어온 해수가 말과 예절을 배우고 차차 적응하면서 고려여인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의 초반에는 사극 말투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가 후반에 가서 사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준기는 아이유에 대해 "극 중에서 사적 원뿔에 가까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대도 크고 걱정도 컸다"며 "하지만 역할들을 날카롭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기쁠 수 있는 여배우라는 생각을 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밀리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달의 연인'은 2011년 중국 허난TV에서 35부작 드라마로 먼저 제작돼 성공을 거뒀다. 청나라 강희제 시대였던 원작의 무대가 '달의 연인'에서는 고려로 옮겨온다.

이준기가 연기하는 왕건의 넷째 아들인 4황자 왕소는 훗날 고려 4대 왕인 광종이 된다. 광종은 노비안 검법을 실시하고 불교를 장려해 민심을 얻고 과거제도를 도입해 인재들을 등용하는 등 성공적인 개혁정치로 고려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하지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호족들을 대거 숙청하고 이복동생과 조카들까지 처형하는 등 공포 정치를 펼친 냉혹한 인물로 역사책에 기록돼 있다.

강하늘이 맡은 8황자 왕욱은 같은 해 태어난 왕소의 이복동생으로 권좌를 놓고 경쟁하는 인물이다.

'달의 연인'의 부제이자 원작의 제목인 보보경심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걷는다"는 의미다.

'달의 연인'은 미국 할리우드 메이저 투자배급사 NBC유니버설이 아시아 드라마로는 처음 투자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영문 제목은 'Moon Lovers - Scarlet Heart Goryeo'다.

'달의 연인'은 20부작으로 100% 사전제작됐으며, 오는 29일 1, 2편이 연속 방송된다.

연합뉴스

김국진·강수지 "우리 사귀니?"

'불타는 청춘' 서 알콩달콩

공개연애 1일 차를 맞은 '치와와 커플'의 알콩달콩한 모습에 여론이 들끓었다. 23일 밤 방송된 SBS TV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서는 경기도 양평에서 녹화를 시작하기 직전 열애 사실이 드러난 김국진(51)과 강수지(50)의 모습이 공개됐다.

김국진은 열애설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다른 출연자들의 성화에 뜬을 들이다 "수지야, 우리가 사귀니?"라고 물었고, 강수지는 연신 부채질만 했다. 열애 사실을 인정한 김국진은 큰 박수를 받았고, "불타는 청춘"을 촬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지금은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단계"라면서 결혼을 계획했다거나 양가 부모에게 인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말을 아끼던 강수지는 "김국진은 엄청나게 다정하다"면서 "평소(촬영장에서) 상냥함이 10이려면, (연애할 때) 상냥함은 1000"이라고 말해 부러움을 샀다.

두 사람은 얼굴이 알려진 탓에 차 안에서 대화하며 데이트를 했을 뿐, 같이 식사를 하



거나 영화를 보러 간 적 없었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순천에서 촬영된 두 사람의 미공개 방송분도 뒤늦게 전파를 탔다.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강수지는 "오빠만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내 아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머뭇거리던 김국진은 "내 아이 수지야"라고 운을 떼더니 20년 만에 말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강수지는 "고맙다"고 말한 뒤 눈물을 쏟았다.

강수지가 눈물을 쏟은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가운데 프로그램은 '수지는 왜 울었을까'라는 자막을 띄웠다.

'불타는 청춘'의 이날 시청률은 직전 방송보다 2.2%p 뛰어오른 8.8%(닐스코리아)를 기록했다. 이 방송의 수도권과 전국 시청률은 모두 10.2%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영화 '덕혜옹주' 500만명 돌파

영화 '덕혜옹주'(사진)가 개봉 15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4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과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틀 10일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덕혜옹주'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500만222명을 동원했다.

올해 5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는 '부산행', '김사외전', '곡성', '인천상륙작전', '터널'에 이어 '덕혜옹주'가 여섯 번째다. '덕혜옹주'는 '터널'에 이어 현재 박스오피스 2위를 지키고 있어 당분간 관객몰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국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소셜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방 우리말	00 KBS 대기획 디펜더스(재)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재)	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육중화)(재)	00 닥터 365 05 나홀로 세계여행 2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W)(재)	00 SBS 12 뉴스 50 닥터365 55 세상발견 유레카(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5 KBS네트워킹특선 보물섬 30 감성애니 하루 (재)		30 헬로킴지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55 TV블로그 꿈지락
2	00 중계방송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중계방송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	00 중계방송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
3	30 코리아엔터테인먼트 플러스 55 토티생활채널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유치원	30 텔레노스터 4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2	30 3시, 뉴스브리핑
4	3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30 워킹맘 육아대디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안녕! 괴발개발 30 터닝메카드 W	00 MBC 이브닝뉴스	00 꼬마해녀 몽니와 해녀특공대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널리즘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가라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의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베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55 숨터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00 수목드라마 (W)	00 드라마 스페셜 (질투의 화신)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청춘 (코리아인, 허나를 꿈꾸다)	10 해피 투게더	10 희망미래에 토크콘서트 청춘진단	10 자기야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0 나이트라인

EBS1		8월 25일 (음 7월 23일 己卯)	
05:00 EBSe 생활 영어 (Unit 129. 청천과 불만)	09:00 곰디와 친구들 (Unit 129. 청천과 불만)	13:35 EIDF 2016 (인생은 백 살부터)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뽕살 1cm와의 전쟁)
05:30 건강한 아침 <효과적인 운동법 - 걷기 전후 스트레칭>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결혼 5년째, '당신이 불편해')	14:35 EIDF 2016 <살이 쉰다는 고전>	20:40 다큐오늘 (술 속의 사랑, 하자배 죽)
05:40 세계전문록 어틀라스 <떠루 갖기행 - 세베체의 나라>	10:30 한국기행 (여름의 맛-밤먹고 기운내시오)	16:00 곰디와 친구들(재)	20:50 세계테마기행 <신들의 바다 정원, 팔라우 4부 - 가장 최고의 낙원, 록 아일랜드 에 빠지다>
06:10 세계의 눈 <그린에너지의 함정>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가지 술밥과 소고기 짜박냄비)	16:30 방귀대장 홍봉이(재)	
07:00 지피이티스 <노르웨이이를 달리다 4부>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45 당동영 유치원1~3(재)	21:30 EIDF 2016 <다이바>
07:3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정오 뉴스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3:05 EIDF 2016 <앤서시 워너: 선거 이야기>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10 EIDF 2016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08:00 당동영 유치원1~3	12:10 EIDF 2016 <학교 가는 길4>	18:00 생방송 특!특! 보너스나1~4	24:50 EIDF 2016 <부서진 기억들>
08:45 방귀대장 홍봉이	13:05 EIDF 2016	19:00 레전드하이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5일 (음 7월 23일 己卯)	
子	48년생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대로만 행해야 하느니라. 60년생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72년생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가까스로 해결될 것이다. 84년생 배후에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25, 27	午	42년생 복이 들어오고 있으니 두 눈 똑똑히 뜨고 맞아들이다. 54년생 원료가 좋아 고급 제품이 생산되는 이치이다. 66년생 발상을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절실하다. 78년생 치밀하게 구성되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05, 65
丑	49년생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즉시 조치하는 것이 합당한 결과를 부른다. 61년생 탐구하고 있어야만 성과를 보는 법이다. 73년생 정해진 일이나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85년생 귀를 같이 하지 않으려는 요소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4, 66	未	43년생 편하게 생각해도 상관없으니 눈치 볼 필요 없다. 55년생 전혀 다른 의미가 이중적으로 있음을 알자. 67년생 표면적인 상생이므로 그다지 별 의미는 없다. 79년생 당황하거나 머뭇거리면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91, 08
寅	50년생 상대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 62년생 아직은 현재 함이 보이지 않는다. 74년생 일관된 마음으로 지속해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86년생 성함과 규모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70, 67	申	44년생 종류는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니 구분을 잘해야겠다. 56년생 생색만을 내려는 이가 보인다. 68년생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일일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80년생 전체적인 국세에 따르는 편이 낫다. 행운의 숫자 : 51, 29
卯	51년생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날 것이다. 63년생 내부적인 면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75년생 지밀한 기획이 선행되어야 목적하는 바를 이루리라. 87년생 방심한다면 목표에 거의 다 이르러서 놓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6, 48	酉	45년생 뜻밖의 행운이 보이니 놓치지 말고 잘 활용토록 하라. 57년생 관계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69년생 가히 납득할 것이다. 81년생 모두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10
辰	40년생 자연스럽게 처리될 것이다. 52년생 전반적인 물결이 예상된다. 64년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을 접하라. 76년생 한 번 선택한다면 틀릴 수 없다. 88년생 배려에 힘입어 풍성함을 누리게 운로다. 행운의 숫자 : 04, 63	戌	46년생 뜻이 있는 곳에 분명코 길이 있느니라. 58년생 사람들과의 만남이 유익하다. 70년생 원일 불명의 불발적인 일이 터질 수도 있느니라. 82년생 중간 역할을 잘 해야만 타인들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07, 22
巳	41년생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53년생 잘만 활용하면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나, 65년생 합리적인 방언의 수단이 시급하다. 77년생 본래의 의지대로만 실행하면 무난하다. 89년생 서로 간의 관계를 감안하라. 행운의 숫자 : 23, 47	亥	47년생 기능을 충분히 해 줄 것이다. 59년생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다. 71년생 행태대로 처세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법이다. 83년생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쾌하게 정리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7, 7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